

소박한 삶을 디자인하다 『핸드 메이드 라이프-손으로 만드는 기쁨, 자연에서 누리는 평화』

월리엄 코퍼스웨이트 지음 · 피터 포브스 사진 · 이한중 옮김, 돌베개, 2005

안 치 윤 ·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 연극평론가

작년에 원주에 있는 백운산 아래 서곡이란 곳에 갈 기회가 있었다. 목공예를 하는 후배의 작업장은 산 아래 골짜기에 있었다. 그는 고향인 이곳으로 내려와 축사를 개조해서 만든 작업장에서 나무와 함께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있었다. 최근에 그는 〈나무와 대화〉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만든 목공예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핸드 메이드 라이프-손으로 만드는 기쁨, 자연에서 누리는 평화』는 그의 작업장 구석에 있던 책으로, 나는 무심결에 이 책의 앞부분을 읽게 되었다. 그 책의 내용은 후배의 삶과 일치하는 것이었고, 그에게 묻지는 않았지만 책의 내용이 그의 삶을 이끌고 있음이 분명해 보였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책을 구입해 즐기게 읽게 되었다. 그 결과 집 한 구석에 목공예 작업실을 작게나마 만들고 싶은 욕망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내 손으로 나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 책의 부제처럼 ‘기쁨과 평화’를 경험하고 싶어졌다.

책에 담겨있는 저자는 미국의 “메인 주 북부 해안에 있는 농가에서 소박한 삶을 추구해 온 교사이자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이자 작가”이다. 그의 사상은 “헨리 데이비드 소로, 에밀리 디킨슨, 니어링 부부의 정신을 이어 받은” 것으로, “거의 아무 것도 사지 않고 필요한 것을 직접 만들어 생활하고 있으며, 그의 독특한 생활방식을 배우러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안내인이자 동료로서 봉사”하면서 살고 있다. 그가 추구하는 삶과 그가 쓴 이 책의 결론은 한 마디로 “소박한 삶의 추구”이다. 그것은 누구나 제 스스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한다. 저자는 “우리 사회는 너무 오랫동안 마구잡이로 디자인되어” “폐자들이 너무 많은 사회가 되었”고, “어느 모로 봐도 비효율적이며 비경제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 모두가 행복을 희생시키지 않고, 승자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실천한다.

이를 위하여 저자의 첫 번째 제안은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창조해내는 것”이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의 세상을 디자인하는 일에 참여할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자각하”는 것이다. 제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바탕이라고 말한다. 두 번째 제안은 모험의 일상화를 통해서 “삶에서 놀랄 줄 아는 감각”과 “마술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터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제안은 “작고 묘한 것의 소중함”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경쟁보다는 협동하는 삶을 배우는 데 있다. 그 밖에도 저자는 사회를 내 자신의 확장으로 만들기 위한 편견 없는 세상, 관계와 의무 속에서 적절한 거리를 찾아내기 위한 균형 잡힌 친밀감과 독립성, 집을 가꾸는 일의 소중함과 경이로움 그리고 그 특권, 사람들이 추구하고 실험하고 디자인하고 창조하고 꿈꾸도록 격려하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일상적인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자의 디자인에 관한 제안은 매우 단순하다. 예컨대 의자는 “너무 오랫동안 기계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일종의 표준 유형으로 고정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 의자를 직접 자기 손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의자 다리가 왜 굽었나 하는 질문을 좀처럼 하지 않게 되었다. 다리를 굽어지게 만들지 않고도 완벽하게 훌륭한 의자를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기계가 의자를 정형화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자를 손으로 만들 때 모양을 달리하는 상상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것 말고도 이 책은 ‘아름다운, 새로운 시선’, ‘일과 밥벌이의 즐거움’, ‘배움과 가르침’, ‘비폭력, 정중한 혁명’, ‘자발적인 가난함’, ‘자연을 닮은 소박한 삶’, ‘평생 작업을 찾아서’와 같은 제목이 붙은, 삶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가치와 방법을 전하는 주옥과 같은 글들을 담고 있다. 다 정리하지 못해, 아니 그것을 내 삶에서 실천하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칼 웅이 말한 것처럼, 소박한 행위는 인간을 소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소박해지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소박한 삶은 덜 폭력적이고, 덜 착취적이기 때문이다. 참 좋은 책. 

